

예술인 안정적 창작 환경 제공

전북문화관광재단, 창작공간활성화지원사업·무대작품 제작지원사업 공모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경운)은 도내 문화예술 생태계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창작공간활성화지원사업 및 무대작품 제작지원사업을 공모한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지역문화예술특성화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지역 예술인의 창작 역량을 강화하고 예술 작품의 제작 및 발표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도민의 문화 향유권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8일부터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창작공간활성화지원사업은 15일까지, 무대작품 제작지원사업은 17일까지다.

창작공간활성화지원사업은 전시, 작업, 숙박 공간 등을 갖춘 창작공간을 운영하는 도내 단체를 지원해 예술인에게 안정적인 창작 환경을 제공하고, 입주 작가와 지역 주민 간의 소통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지원유형은 거주형(전시+작업+숙박 공간)과 비거주형(전시+작업 공간)으로 거주형은 최소 4천만 원에서 최대 6천만 원까지, 비거주형은 최소 3천만 원에서 최대 4천만 원까지 차등 지원된다.

선정된 단체는 입주 작가 역량강화 프로그램과 퍼블릭 프로그램을 각각 2회 이상 운영해야 하며, 큐레이터 배치와 창작지원금 편성 또한 필수 요건이다.

신청 자격은 전북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창작공간을 보유하거나 운영 중인 단체다.

또한 무대작품 제작지원사업은 도내 공연예술단체를 대상으로 무용, 연극, 음악, 전통예술 등 다양한 분야의 창작공연 제작을 지원하며, 총 20개 내외 단체를 선정할 예정이다.

지원금은 공연장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소극장(300석 미만)은 최소 2천만 원에서 최대 3천만 원까지, 중·대극장(300석 이상)은 최소

3천만 원에서 최대 4천만 원까지다.

신청자격은 도내 소재한 공연예술단체 중 최근 5년 이내 3건 이상의 창작공연 실적이 있는 단체에 한하며, 전년도 선정 단체는 신청이 제한된다.

올해부터는 인구감소지역 소재 단체와 장애 예술인 참여 비율 30% 이상 단체에 가산점을 부여, 사회적 가치 실현과 지역 균형 발전을 반영한 평가 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다.

이경운 재단 대표이사는 "이번 공모를 통해 지역 예술단체의 창작 기반이 한층 더 견고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역량 있는 단체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재단 누리집(www.jct.or.kr)과 창작지원팀(063-230-7444, 7445)으로 문의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캐나다 포커스' 로 캐나다 영화 소개

전주국제영화제, 10편 상영작 공개

전주국제영화제(공동집행위원장 민성욱·정준호)가 밴쿠버국제영화제와의 교류 프로그램인 '캐나다 포커스' 상영작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제26회 전주국제영화제는 '2024-2025 한국-캐나다 상호 문화교류의 해'를 맞아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주한캐나다대사관, 캐나다 예술위원회(Canada Council of Arts)와 함께 '캐나다 포커스'라는 이름으로 캐나다 영화 10편을 선보일 예정이다. 캐나다 포커스는 문화적 다양성과 포용성의 가치를 핵심으로 하는 문화교류 프로그램이라는 점에서 영화를 통해 캐나다 사회의 다양한 문화와 정체성을

볼 수 있어 상영작들 역시 다채로운 매력을 느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밴쿠버국제영화제와의 문화교류 사업으로 기획된 이 프로그램은 전주국제영화제가 끝난 후 올해 10월 2~12일까지 개최되는 밴쿠버국제영화제에서는 '코리아 포커스'도 선보인다.

이와 함께 전주국제영화제는 이번 캐나다 포커스를 통해 캐나다를 대표하는 거장 가이 매딘, 드니 코테 등의 신작부터 재능있는 캐나다 신예 감독들을 소개할 예정이다.

한편 제26회 전주국제영화제는 4월 30일부터 5월 9일까지 전주 영화의거리를 비롯한 전주시 일대에서 개최된다.

/장은성 기자



태권도진흥재단은 7일 국립태권도박물관장에 정상기 전 국립전주박물관장 직무대리를 임명했다. 사진 왼쪽부터 김중현 이사장, 정상기 관장

전주세계소리축제, 전통장르 대표 시장 거점화 선정

3년간 최대 13억5000만원 지원

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위원장 이광준)가 장르별 시장 거점화 지원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 전통예술 장르 대표 공연예술축제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다졌다.

7일 소리축제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와 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 추진하는 이 사업은 장르 특화 공연예술축제를 공연예술 장르별 시장(유형) 거점으로 조성해 지역문화예술 균형발전을 견인할 목적으로 추진됐다.

소리축제는 4개 장르(음악, 무용, 연극, 전통) 중 유일한 전통(정악, 민속, 연희, 창작 등) 장르에 선정돼 연간 국고보조금 4억5천만원(최대 3년 13억5천만원)을 지원받게 됐다.

'2025 장르별 시장 거점화 지원사업' 공모에는 각 장르별 축제와 단체 등이 참여, 서면 심

의를 통해 8개 단체를 선정했다. 이어 면접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각 장르별 심사를 거쳐 최종 4개 축제 및 단체를 선정했다. 특히 프레젠테이션에 직접 나선 김희선 소리축제 집행위원장은 2001년 시작해 올해로 25년이 된 소리축제에 대한 비전과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판소리를 중심으로, 정악, 민속악, 연희, 창작 음악, 월드뮤직을 고루 선보이는 전통음악 중심의 공연예술제인 소리축제를 소개했다. 아시아 유일 세계 25대 축제 선정, 2019와 2024 트랜스 글로벌 월드뮤직 차트 베스트 페스티벌 1위, 2위 선정 등 글로벌 유통을 매개할 수 있는 유일한 전통 장르 공연예술 축제임을 강조했다.

또한, 공공재원이라는 안정적인 예산을 기반으로 개최할 축제 운영 노하우와 전 세계 5만여 명의 예술가 그리고 국내외 프리젠테터 네트

워크, 해외 축제 및 기관들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한 타깃 시장 확보 개척 및 해외 시장 대상 브랜드 확립에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고 있는 소리축제만의 강점을 소개했다.

김희선 위원장은 "지난 25년간 소리축제는 지속적으로 변화하며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고, 이제는 지역축제를 넘어 대한민국 대표 공연예술제로 성장했다"며 "소리축제의 가장 중요한 미션은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이며, 이미 로컬의 예술가들은 소리축제를 통해 세계로 나아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공모 사업 선정을 계기로 한국예술을 글로벌로 매개하는 축제, 예향이자 전통예술의 본향인 전북지역을 중심으로 지역거점 전통음악 특화공연예술제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며 "특히 지역 예술가들의 해외유류가 더욱 용이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은성 기자

태권도진흥재단, 정상기 국립태권도박물관장 임명

태권도진흥재단(이사장 김중현)은 7일 국립태권도박물관장에 정상기 전 국립전주박물관장 직무대리를 임명했다.

정상기 신임 국립태권도박물관장은 국립공주박물관을 비롯해 진주, 청주, 제주, 익산 박물관 등에서 학예연구관 등으로 30년 이상 근무한 전문가이다. 특히, 국립전주박물관에 재직 중이던 2020년에는 '제8회 전북박물관미술관협의회 회장'에 선출되어 전북권 내에 있는 박물관과 미술관 협의체를 이끌기도 했다.

임명장 수여식에서 정상기 국립태권도박물관장은 "태권도 전문 박물관인 국립태권도박물관을 맡게 되어 영광이자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라며 "앞으로 지역 밀착형 박물관이면서도 세계적인 체육 전문 박물관으로서 위상을 떨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라며 국립중앙박물관 등 국립박물관들과 연계하여 유물 교류 전시회 등 국립태권도박물관이 더욱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우주=전문선 기자

전북문화관광재단, 유아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공모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경운)은 유아들이 다양한 문화예술을 경험할 수 있도록 유아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지역 내 문화기반시설을 활용해 유아에게 문화예술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창의력과 감수성을 키우는 데 목적을 뒀다.

신청은 8~22일까지며, 국가문화예술지원시

스템(NCAS)을 통해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신청 대상은 만 3세부터 5세까지의 유아를 대상으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기획과 운영할 수 있는 도내 문화시설이다. 다만, 참여를 위해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을 반드시 보유해야 한다.

공모 분야는 △예술꽃·꿈형(일반형) △예술썩:틈형(인큐베이팅형) 두 가지 유형이다. 이중 '예술썩:틈형'은 재단의 유아 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 수행실적이 없는 신규 문화시설만 신청 가능하다.

이번 공모를 통해 총 4개 내외의 문화시설을 선정, 최소 2천만 원에서 최대 6천만 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문화예술교육의 질적 향상과 인구감소지역의 문화격차 해소를 위해 가산점 제도를 새롭게 도입했다. 이에 따라 참여 인력에 문화예술교육사 1인 이상이 포함되거나, 문화시설이 인구 감소 지역인 경우에는 각 항목별로 2점의 가산점이 부여된다.

/장은성 기자

전북문화관광재단, 청년씨름 교육생·청년 자율기획 소모임 공모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경운)은 '2025 청년씨름 교육생 및 청년 자율기획 소모임'을 공모한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지역 문제에 대한 청년세대의 주체적인 고민과 해결 과정을 지원함으로써 도내 청년 문화기획자 및 소모임의 성장을 도모하고자 기획됐다. 총 사업비 1억 5천만 원 규모로, 청년씨름 교육생 선발과 자율기획 소모임 지원 등 두 가지 방식으로 운영된다.

신청은 오는 15일까지며, 재단 누리집에서 지원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교육생은 이메일

(jctedu@hanmail.net)로, 소모임은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모집 대상은 39세 이하의 도내 청년 또는 소모임이다. 지역 출생자, 도내 학교 졸업·재학자, 공고일 기준 도내 거주자 등 연고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최종 선정된 교육생에게는 청년 기획자 양성 과정(교육)과 포럼·강의·토론, 교류 및 네트워킹 등의 기회가 제공된다. 자율기획 소모임에게는 기획 지원, 예술 실험, 예비 창작 프로젝트의 운영비를 지원한다.

/장은성 기자



전주매일 캠페인

춘향전의 무대

남원 광한루

광한루는 조선시대 이몽선 형회경승이 남원에 유배되었을 때 지은 것으로 처음엔 광동루(廣東樓)라 불렀다고 한다. 광한루(廣寒樓)라는 이름은 세종 16년(1434) 정인지가 고쳐 세운 뒤 바꾼 이름이다. 지금 있는 건물은 정유재란 때 불에 탄 것을 연조 16년(1638) 다시 지은 것으로 부속건물은 경조 때 세운 것이다.

규모는 앞면 5칸·옆면 4칸이며 지붕은 옆면에서 볼 때 여덟 팔(八)자 모양을 한 팔각지붕이다. 누마루 주변에는 난간을 둘렀고 기둥 사이에는 4면 모두 문을 달아 놓았는데, 이름에는 사방이 트이게끔 안쪽으로 걸 수 있도록 해 놓았다. 또한 누의 동쪽에 있는 앞면 2칸·옆면 1칸의 부속건물은 주위로 누마루와 난간을 둘렀고 안쪽은 온돌방으로 만들어 놓았다. 뒷면 가운데 칸에 있는 계단은 조선 후기에 만든 것이다.

춘향전의 무대로도 널리 알려진 곳으로 넓은 인공 정원이 주변 경치를 한층 돋우고 있어 한국 누정의 대표가 되는 문화재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 (출: 문화재청 제공)